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32권 38호(나해) 2012-8-19

[묵상]



저희를 수군거리게 하는 당신,
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신지
왜 당신 살을 먹어야 하는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다른
생명의 빵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양식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 柜 -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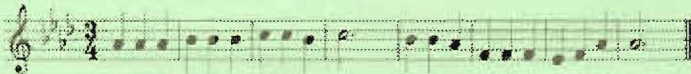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이미란 마리아
특전미사	(생)성낙호 요셉 & 성은혜 실비아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박영춘 안토니오, 김풍길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조경림 요셉, 김창운 & 편성근, 강태람, 배정환 베드로 & 전길례 모니카, 김효식 아가다, 박대수 나자로 (생)이상훈 프란치스코 가정, 이 프란치스코 라우렌시오, 엄크리스 베르나르도, 박인식 토마스 & 박기원 리디아, 정인식 베드로 & 장현모 올리아나, 백삼위장학기금을 봉헌해주신 익명의 은인, 유 존 요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9,1-6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 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을 경외하여라, 주님의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아쉬움 없으리라. 부자들도 공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아이들아 어서 와 내 말을 들어라. 주님 경외를 가르쳐 주리라. 삶을 즐기고 복을 누리려, 장수를 바라는 이 누구인가?○
○네 혀는 악을 조심하고, 네 입술은 거짓을 삼가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찾아라.○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5,15-2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복 음 요한(John) 6,51-58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1	241	234
봉헌	269	269	265
성체	300	300	309
파견	214	214	19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하느님 말씀과 교회

교회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50).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땅에”(요한 1,11) 오셨습니다. 말씀은 본래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창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친밀한 유대를 지니도록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넷째 복음서 서문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은” “그분의 백성” (요한 1,11) 이 하느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로고스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하고 죄인이면서도 진솔하게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하여 자신을 열어 놓을 때, 전적인 변모가 시작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에 의하여 모양이 잡혀지도록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외아드님” (요한 1,14) 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창조물이, 새로운 백성이 탄생합니다. 믿는 이들, 곧 신앙의 복종을 사는 이들은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요한 1,13)이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아드님 안에서 자녀들이 된 이들(갈라 4,5-6; 로마 8,14-17 참조)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 복음서의 이 단락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의미 깊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지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참 얼굴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사이에 천막을 치러 오신(요한 1,14 참조)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수용으로 규정되는 실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계신 이 하느님의 거처(요한 1,14 참조), 구약에 예표되었던 이 서키나(탈출 26,1 참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현존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교회의 삶 안에 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51).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과거 사건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살아 있는 관계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20) <◆계속>

나를 먹어라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등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보자면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성현들처럼 장수하시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혀 죽길 원하셨고, 당신을 먹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조건 없는 신뢰를 하고 하느님과 하나 될 때 하느님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통해 활동하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왜 하필이면 '빵'이었을까요? 식욕이 당기고 효과가 탁월하다는 웅담이나, 곰 발바닥, 개소주, 산삼이면 어땠을까요? 굳이 빵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먹는 빵, 즉 밥이라는 것이 별다른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빵으로 선언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살, 즉 '사랑 덩어리'가 바로 성체(聖體)입니다. 우리가 성체를 먹는 까닭은 참다운 삶을 위해서 사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바로 영원으로 넘어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식물도 물과 햇빛을 먹으면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간도 육체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꽃을 피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때 아무 맛도 없는 성체를 받아먹지만, 그 성체의 힘으로 아름다운 영혼의 꽃, 즉 사랑을 꽃피워야 합니다. 또한 성체는, 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뚱이기 때문에 그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뇌와 결단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고뇌와 결단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이 몸을 내놓으셨다

는 것을 기억하며 깊이 통회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살과 피를 내놓으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보답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체를 먹습니다.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늘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측은지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무조건, 한없이 용서합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남에게 먹이라고 내어 놓습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인들을 위해서는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도 죽습니다. / 성체를 먹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그래서 희망

넘어져 아팠지만 넘어져 있는 동안은
다시 넘어질 일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힘들어 울었지만 울고 있는 사람을 또 울리지는
않을 것이라 안도했습니다.
넘어져 일어날 땐 넘어졌던 땅을 쥐고 일어나며
눈물을 흘리는 얼굴 역시 행복에 겨워 웃던 얼굴입니다.
희망은 절망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영 아네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박희자 마리아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송현식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구역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Back to School’ 준비합니다!

8월

남캘리포니아주 답지 않게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요즘 날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긴 여름방학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느슨해졌던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Back to School’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 본당 주일학교/한국학교 개학 : 9월9일(주일)

◆ 유아세례 신청

- 세례식 일시 : 8월25일(토) 오후 6시
- 대부 대모를 정하시어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당일 오후 5시50분까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 세례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

◆ 예비자 교리반 개설 및 신자 재교육

- 환영식 : 9월2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 성전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M.E.소식

- 남가주 ME 첫주말 참가부부 신청받습니다.
* 일시 : 9월14일(금)~16일(주일) 2박3일
- 남가주 ME 30주년 책자발행 협조건 : 1차(1982년)~43차(1999년) 수강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수집
- 문의 : 본당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남가주 제35차 남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의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5차 남성 꾸르실료에 4명의 수강자와 1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8월23일(목)~26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수강자 : 오영섭 스테파노, 윤영훈 바오로, 금영도 베드로, 김용 스테파노
- * 봉사자 : 현석주 아오스딩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성령채신대회 CD 판매합니다

- 제25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의 CD구입을 원하는 분은 사무실 또는 본당 성령기도회장(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에게 문의하십시오.
- * 가격 \$20

◆ 배론청년회 기금모금 협조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익명의 교우께서 왕전빵, 왕만두 700개를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판매후(8월5일) 총수익금 : \$2,228.88
- 기금용도 : 청년회유니폼 제작, 남가주청년 성경퀴즈대회 지원, 단합대회 등 제반 활동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 문의 : 청년회장 최태훈 아오스딩 ☎(310) 508-2123

◆ 청소년분과위 친목모임

- 일시 : 9월9일(주일) : 오후 4시
- 장소 : 친교장(BBQ 파티)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한국학교 교사, 배론청년회 회원, 자모회간부(부부동반하셔도 됩니다.)
- 문의 : 청소년분과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성당 주차장에서 지켜야할 공중도덕

최근(5일) 주일 낮미사중 축구장 골대(남쪽)뒤에 주차해 놓은 검은색 벤츠 SUB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문을 열고 내릴 때 옆차에 상처를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가 주의해주시고, 피치못한 경우엔 연락처를 상대방차에 남겨 놓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9일(주일) : P.V. 3/4반(회덮밥 \$3)
- 8월26일(주일) : 토런스 서3반(비빔밥+콩나물국 \$3)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성전헌금	구자운	국세찬	권태만	금영도	김관기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상규	김원호	김재희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원호	김재희	김형순
김종렬	김진숙	김택수	김형순	남명자	남성철	남성철	박현주	성낙호	신경훈	안민수	양영관
박현주	성낙호	신경훈	안민수	양영관	유근우	유근우	이현주	임 순	장영우	정훈모	채미정
이윤조	이일길	이현주	임 순	임연조	장영우	최기호	최미열	최의수	최현찬	한혁수	
전시웅	정훈모	조소영	채미정	최기호	최미열	이크리스					
최수현	최순옥	최의수	최현찬	한혁수							
합계 : \$4,765						합계 : \$3,195					
미사헌금 : \$2,815						감사헌금 : 박이레네 윤자열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한국학교 설명회

- 일시 : 9월9일(주일) :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
- 장소 : 강당
- 대상 :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310)464-7490

학생미사(주일 오전 9시30분)에 빠지지 맙시다.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여름방학중입니다. 방학중에도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시오.

남가주 소식

제16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 회원들이 지난 1년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그림, 사진, 설치 미술, 조각, 공예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판매된 작품들의 수익금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여집니다.
- 많은 교우들이 관람하여 영성생활에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일시 : 9월15일(토)~28일(금)
- 주제 :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지도신부 : 김효근 신부
- 오프닝 리셉션 : 9월15일 오후 5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 * 빌딩 뒤와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한국 성지순례 및 관광

- 순례일정 : 10월13일(토)~21일(주일) 8박9일
- 순례지 : 새남터, 절두산, 솔피, 공세리, 연양, 풍수원, 배론, 피아골, 연풍성지 등
- 관광지 : 설악산, 남해안, 경주, 청계천, 전주 등
- 문의 : 김예란 캐롤라인 ☎(714)883-7540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남명자 데레사 365-2542 8/14(화) 반미사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석안젤라, 민안나 634-9631 8/11(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8/15(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8/12(주일)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심재은 클레멘스 999-5808 8/11(토) 오후 6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8/8(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송기철 루카 974-2857 8/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8/7(화) 오전 10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8/21(화) 반미사 오후 7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8/11(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9(주일) 오전 10시 윌슨파크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박의혜 세실리아 541-0700 8/17(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8/9(목) 오후 8시 성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8/19(주일) 오후 2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404-206-2911 8/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8월사목회	오후 1시
-------	-------

‘예’ 와 ‘아니오’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투르드의 강변 동굴에 뱀감을 주우러 온 14살의 베르나데트 앞에 ‘이 세상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함께 묵주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발현했을 때 소녀가 이름을 묻자 여인은 “나는 무염시태(無染始胎:원죄 없이 잉태됨)이다.”라고 대답하심으로 자신이 성모님임을 밝혀 오랫동안 가톨릭 교리에 있어 논쟁거리였던 성모님만은 원죄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본성으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을 통해 잉태되었음을 정의(定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발현일인 2월 25일에는 자신이 가리킨 곳을 파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씻도록 하셨는데, 베르나데트는 정신없이 샘을 파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이 죄(罪)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류의 어머니 하와’(창세 3,20)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원죄를 지음으로써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 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같이”(로마 5,12) 성모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로마 5,21) 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중에 태어났으며 ‘내 속에도 사리고 있는 죄’로 인해 ‘죄의 노예’이며 베르나데트가 샘을 파면서 깨달았던 비참하고 ‘슬픈 죄인’인 것입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는 뱀(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으로부터 금지된 열매를 따 먹습니다. 하와가 원죄를 짓는 과정을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①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② 과연 먹음직하고 ③보기에 탐스러울뿐더러 ④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아서 ⑤ 그 열매를 따 먹고 ⑥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 주었다.”(창세 3,6)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유혹에 넘어가 그 죄를 응시하는 첫 발견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먹음직스럽다. 화려하다. 향기롭다. 감미롭다. 죄는 본

능적인 감각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후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쾌락에 대한 기대감이 용솨음칩니다. 이 과정을 「준주성범」은 “처음에는 마음에 단순한 생각만 하고, 그다음에는 상상이 일어나고,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衝動)이 발하고 마침내는 승낙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가 느낀 ‘사람을 영리하게 해 줄 것 같다’는 느낌은 악의 논리입니다. 결정적인 악의 정당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나마 유혹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딱 이번 한 번 뿐인데, 인생은 원래 즐기는 거야, 사랑은 불나비야라는 식의 악의 논리는 여지없이 충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열매를 따 먹고 남편에게도 따 줌으로서 악은 습관화(중독)되고 전염되어 온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그 여인을 범한 것’(마태 5,28 참조)과 같으니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죄의 독화살이 초기 단계인 ‘음란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단호히 빼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에페 5,16) 주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마태 16,4)입니다. 이 악하고 절개 없는 시대에 주님은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라고 경책하고 계십니다. 악의 논리는 교묘합니다. ‘예’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할 수도 있다고 우리를 혼란시키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애매한 제3의 무엇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제3의 선택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원죄 없이 잉태된 단 한 분인 성모마리아님. 광복절이자 성모승천 축일을 맞은 이때, 제 마음의 동굴에도 샘물 하나를 마련해 주시어 이 불쌍한 죄인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끓임없이 재 발꿈치를 물려하는 간교한 뱀의 머리를 짓밟아’(창세 3,15 참조)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소서.(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대교구 주보자료>